

21세기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

- 송기태 선교사 -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 공동대표, 선교한국 프로그램 위원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 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제2인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아 온 여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물에 씻음으로 그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 치유는 그의 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람에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그 땅의 흙을 담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개종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21세기에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경제적인 곤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백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준의 몽골에서의 월급 수준의 10배에서 2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몽골에서 1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1년 만에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와서 경제적인 풍요를 맛보고 삽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곤경에 대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것은 경제적인 풍요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풍요도 함께 받습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 15,000명중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수치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한 몽골인의 약 7%에 가까운 몽골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몽골 본토에서의 복음화 비율인 0.8%의 약 1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본국을 떠나 타국 생활을 할 때 생활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통하여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행해지는 몽골인 사역은 스포츠로 말하면 흥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경기에는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많고 익숙한 환경도 선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몽골인 선교는 한국 교회 안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풍부합니다. 교회의 건물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사용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큰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한 몽골인 사역을 하고 있는 30여 개의 교회들을 섬기고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DMN 즉 Diaspora Mongolian Network을 2년 전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DMN에서는 설날과 추석을 이용하여 연합으로 수련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 교회에서는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70여명이 참여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필요한 성경이나 사역 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고 사역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달마다 연합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몽골에서의 나담이라는 큰 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전도집회를 했는데 250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40여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올 초에는 몽골에 하인화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몽골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각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MN은 전 세계에 흩어진 800만의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 450만, 러시아에 56만, 미국에 1만, 일본에 5천, 유럽에 2만 등 전 세계에 500만의 몽골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 DMN에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내몽골, 러시아, 유럽 등지에 계속해서 지부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통하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제2의 선교의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칭기스칸이라는 한 몽골인이 아시아와 러시아와 유럽을 지배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칼이 아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